

지역 매아리



부안해경, 야밤 불시 상황 구조 대응 훈련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야간 해상사고 발생 시 대응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구조 역량을 강화하려고 야밤 불시에 실제와 같은 상황명령을 부여하여 비상소집 및 긴급 상황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지난 26일 오후 8시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서방 3마일(5.5km)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압초에 충돌하여 낚시꾼이 해상으로 추락하고 선체에 침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부안 해경은 이에 따라 출동한정 뿐만 아니라 해경 구조대, 변산파출소, 위도파출소까지 비상 출동해 사고 해역으로 전속 이동하여 익수자 및 환자를 구조하는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으며, 인근 어선 등 통항선박에 구조 협조요청 및 상황대처법을 만들어 매뉴얼에 따라 각 기능별 상황처리 사항을 점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끝없는 탐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인권영화 시나리오 공모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 제 7회 인권영화 시나리오를 3월 30일까지 공모한다.

2012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권영화제는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 시민과 경찰이 영화를 매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매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공모대상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인권과 관련된 모든 소재를 주제로 20분 이내 시나리오로 이메일(kim5641@pdic.gochang.go.kr)을 통해 응모가능하며 관련문의는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063-560-0328)로 하면 된다.

김성재 서장은 "인권영화 시나리오 공모 등 참여는 인권이식 한 단계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많은 작품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친환경자연생태도시로 거듭

고창군,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가치경영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이 역동적인 군정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고창군은 'TV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2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시상식에서 '가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혁신과 창조적 마인드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경영 선진화를 이뤄낸 리더들을 가려 시상하는 상이다.

고창군은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행정책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고창군이 역동적인 군정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사르스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

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다

정읍시, 6개 마을 · 단체 협정식 가져

정읍시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발굴된 6개 마을·마을이 27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구도심을 깨우는 마을의 약속'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기치로 마을과 단체에 필요한 작은 생각들을 자발적으로 모아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자율과 공생의 협정이다.

협정에는 생고을상인회와 연지사간변영회, 연지사간변영회 문화놀이터, 연지사간변영회 등이 참여했다.

협정에 따르면 ▲생고을상인회는 매

월 청소의 날 운영과 함께 무인점포를 시범운영하고 전통 점포 체형장을 개설한다. 또 시장 해설사 양성 교육 시에 따르면 ▲연지사간변영회는 청소를 통해 연지사간 경관 개선에 노력한다.

또 ▲문화 놀이터는 도심형 문화 공간조성과 창작 활동 지원을 맡고, 문화 놀이터 공간 환경 정비에도 나선다.

▲연지사간변영회는 상가 앞 주차 안과 상가 앞 깨끗이 하기 등의 의식 계도 활동을 적극 펼치고 ▲연지사간변영회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 등에 주력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7월 도시재생리더 양성을 통해 위촉된 11명의 코디네이터가 6개 마을과 단체에 투입돼 각 마을·단체와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정읍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소방서, 진서면 화재 초기진화 성공 더블보상제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 27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한 배안중(72)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더블보상 수혜자 배씨는 지난 2월 2일 부안군 진서면 마을 도로에서 걸

어가고 있었는데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나 확인한바 보일러 전장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가 확산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였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

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많은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화합과 희망의 패럴림픽 성공 기원 고창군, 2일~3일 성화봉송 진행

전 세계 장애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도전과 용기,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고창군에서 진행된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란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전라, 경기, 충청, 경상, 제주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고창군은 전라도 대표지역으로 선정됐다.

고창 성화봉송 행사는 3월 2일 정월대보름 전통행사인 '오거리당 산제'에 기념행사와 함께 제후 후 다음날인 3월 9일부터 성화봉송이 진행되며 각 지역에서 모인 희망의 불꽃이 서울에서 합화 후 9일 개막식장인 평창에 도착한다.

성화봉송 행사중 일반봉송은 고창군청에서 시작해 고창여중 고

창경찰서, 터미널 사거리, 제일아파트 등 고창읍 시가지를 거쳐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4.8km구간을 48명의 주자가 뛰게 되며, 이색봉송은 고안동 유적지에서 모로모로 열차를 이용하여 봉송행사가 진행된다.

이 중 고창군민 8명이 봉송주자로 나서게 된다.

박우정 군수는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화봉송이 전라 권역을 대표하여 고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추제인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정기총회

제17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제3차 정기총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27일 환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관계자와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연천군,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검토와 위원회 추진방안 논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MAB 한국위원회는 28일 생물권보



전지역 핵심구역인 선운사도립공원과 탐사르 갯벌 습지센터를 견학한 계획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도순 위원장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후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 · 취임식 개최

제21대 정읍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 권동임(영원면)씨가 취임했다.

정읍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 · 취임식이 27일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제20대 이영길 회장이 이임하고 권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또 부회장은 부회장에 오병태(소성)씨와 김용식(감곡)씨, 사무국장 이덕기(신대인), 재무국장 박방우(이평), 감사에 김길태(태인)씨와 이달호

(동 지역 전체)씨가 각각 취임했다.

그간 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권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하는 지도자로서 과학 영농 기술 보급과 실천에 앞장서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문체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간 농업 발전과 지역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이영길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치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13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13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13 | 750ml 1ea/12% | GIFT SET 4 13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13 | 375ml 5ea/13% | GIFT SET 6 13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13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